證人으로 將星級도 申請

故金中將事件軍裁下午公判

장충단(奬忠壇) 사건에 관한 군재공판은 지난 십일일 오전 십시부터 육군본부 군법회의에서 개정되었는데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었다 재판장 김창룡(金昌龍) 중장 심판관 계 십일명 중 육군 중장 김홍일(金弘壹) 씨 외 세 명이 출석하였고 검찰관 김용배(金容培) 소장은 출석하였으며 변호인으로는 김병로(金炳魯) 씨 외 세 명이 출석하였다 오전 십시 오분에 개정을 선언하고 피고 김창룡 중장을 인정심문한 후 검찰관 김용배 소장은 기소장을 낭독하였다 그 요지는 피고 김창룡은 육군 중장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육군 소령 박진경(朴鎭經) 씨 살해 사건에 관하여 그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위조하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인 김진기(金振基) 씨 외 십일명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또 증인 김진기 외 십일명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또 증인 김진기 외 십일명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또 증인 김진기